조셉 이그나즈 밀도퍼 '성령 강림'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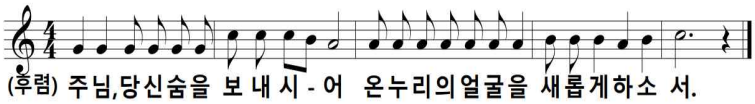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사도 2,1-11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제2독서 | 12,3ㄷ-7.12-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 요한 20,19-23

성가 | 입당성가 142 예물준비 342
영 성 체 166 파견성가 140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춘원 베드로 신동환 아우구스티노	린다 김 신동은 엘리사벳
생미사	**봉헌**
이희중 요한보스코, 김민지 안나 김가롤로 신부, 김효주 수녀 이지훈 아녜스, 김규헌 프란치스코	이은지 아가다 방상우 알렉시오 방상우 알렉시오

오소서 성령님
믿는이들의 마음을 충만케하시고
그들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신청:사무실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바자회 성원에 감사합니다.

제 23회 나눔의 바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과 후원금, 판매 물품, 의류를 기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자회 총 결산은 정리후 주보에 게재됩니다.

***바자회 경품 확인 및 수령안내**
사무실로 오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주일)까지 수령하지 않는 상품은 무효처리 됩니다. (오현아, 김린다, 김진섭, 최정현, 차로사)

▶바자회 도네이션 모금 총금액 : $5,245

후원금: 주세정, Jon K Lee, Korean Marty'rs Fraternity, 익명, father michael, 송준호, 성 프란치스코 마을

▶5월 주일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 8시 50분부터 모든 신자가 함께 드리는 묵주기도
5/28(일) 은총의 샘 꾸리아

▶첫 고해성사 안내

일시: 5/28(오늘)부터 6/18(일)까지 매주일 8:40am부터
장소: 아래성당 고해소, 대상: 4/30 세례성사 받으신분들

* 첫 고해는 세례 후 교회의 깊은 관심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연결하는 전례입니다. 교우분들과 대부모님들은 신앙의 자녀들이 첫 고백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삶을 내면화시키고,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성가정회(FYMMY)회장 및 회원모집

젊은 부부들이 주님안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의지하는 모임입니다.
문의: 청년분과장 강토마스 310-413-1653 카톡: kangkenny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함께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문의: 이카타리나 646-696-4680

▶2023 청년성서모임 봄학기 그룹원모집

대상: 가톨릭 세례받은 청년
모집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마감: 6/11(일) 문의: 201-912-7577

▶주일학교 교사 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6월 성경 공부 일정

주 일	오후 1시~2시20분, 다미안홀	담당: 효주수녀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	성찬 봉사	복사
5/28	김진수 대건 안드레아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배수아 마들렌 소피바라	배수아 마들렌 소피바라	김영숙 카타리나	이유채아멜리아 최예준사도요한
6/4	정동주 유스토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한서희데레사 김승현마리아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공지사항 기부 주보

성령 강림 대축일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사건을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은 이스라엘 축제 중 하나인 "오순절"(사도 2,1)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보리와 밀을 거두어들이고 나서 햇곡식을 하느님께 드리는 봄 수확 감사제로 "수확절"(탈출 23,16), "주간절"(탈출 34,22; 민수 28,26; 신명 16,9-12)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훗날에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 시나이산에서 이뤄진 계약과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은 '50번째'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펜테코스테](Πεντηκοστή), 라틴어로는 [펜테코스테스](Pentecostes)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세례성사를 받은 모든 이에게 당신 은총으로 영적인 힘을 북돋아 주고 그들을 성화시키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령께서는 성사와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덕행으로 꾸며 주실 뿐 아니라, 또한 당신 은혜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며'(1코린 12,11) 모든 계층의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도 나누어 주신다"(12항).

〈성령 강림 The Pentecost〉, 엘 그레코(El Greco) 作

성령께서 주시는 일곱 가지 은총을 '성령칠은'(聖靈七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①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도와주는 '지혜', ② 하느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통달', ③ 참 진리를 잘 알아듣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지식', ④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식견', ⑤ 하느님을 참 아버지로 알고 따르도록 도와주는 '공경', ⑥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유혹에 맞서도록 도와주는 '용기', ⑦ 하느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내 뜻을 내려놓게 해주는 '경외'입니다(이사 11,2 참조).

또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아홉 가지 열매도 있습니다. 바로 ① 사랑, ② 기쁨, ③ 평화, ④ 인내, ⑤ 호의, ⑥ 선의, ⑦ 성실, ⑧ 온유, ⑨ 절제(갈라 5,22-23)입니다. 이들은 1)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2)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인내, 호의, 선의, 그리고 3) 자신과 관련되는 열매인 성실, 온유, 절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탄생, 곧 새로운 하느님 백성의 시작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제 23회 '나눔의 바자회'에

베풀어 주신 하느님 은혜에 감사합니다.